

## 위치정보 ‘법 위반 사례집’ 첫 발간

- 사업자 간과하거나 실수하기 쉬운 4가지 항목 정리...보호조치 강화 기대 -

위치정보 사업자들이 간과하거나 실수하기 쉬운 항목들을 정리해 법 위반 사례들을 묶은 책자가 처음으로 발간됐다.

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(위원장 김종철)와 한국인터넷진흥원(원장 이상중)은 3일 「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(이하 ‘위치정보법’)」에 대한 사업자 이해를 돕고 법규 준수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‘위치정보법 주요 위반사례집’을 발간했다고 밝혔다.

사례집은 매년 실시하는 사업자 실태점검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 중 자주 위반되는 사례들을 4가지 항목으로 정리해 구성됐다.

사업자들이 간과하거나 실수하기 쉬운 항목들로 ▲위치정보사업자 등의 변경 등록·신고, 휴·폐업, 양수 및 합병 등 ▲위치정보 이용약관 및 개인 위치정보 처리방침 ▲위치정보의 관리적·기술적 보호조치 ▲개인위치정보 파기 등과 관련된 위반 사례다.

### < ‘위치정보법 주요 위반 사례집’ 주요 내용 >

- ① 위치정보사업자등의 변경 등록·신고, 휴·폐업, 양수 및 합병 등 : 미리 챙기지 못해 행정처분이 종종 있었던 사례이며, 상호·주된 사무소 소재지·위치정보시스템 등 사전에 방미통위에 등록 또는 신고해야 할 사항 및 방법
- ② 위치정보 이용약관 및 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 :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많아 누락하기 쉬운 이용약관 및 처리방침에 대한 위반사례 등
- ③ 위치정보의 관리적·기술적 보호조치 : 접근권한자 지정 및 권한 제한, 위치정보 취급 관리절차 및 지침 마련, 위치정보취급자의 정기교육, 정기 자체검사에 관한 사항 등
- ④ 개인위치정보의 파기 : 개인정보의 수집, 이용 또는 목적 달성 시 파기관련 위반사례

방미통위는 최근 위치정보 활용 서비스가 고도화됨에 따라 개인위치정보 보호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례집이 사업자들의 법률 이해도와 법규 준수 제고에 도움을 줘 위치정보 보호조치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

방미통위는 매년 실시하는 위치정보법 실태 점검에 앞서 오는 4일 관련 설명회를 열기로 하고 이날 참석한 사업자에게 현장에서 사례집을 배부할 예정이다.

이후 방미통위 누리집(www.kmcc.go.kr) 및 한국인터넷진흥원 누리집(www.kisa.or.kr)에도 게시해 국민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한다.

붙임. ‘위치정보법 주요 위반사례집’ 표지

담당 부서	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 위치정보정책팀	책임자	팀 장	윤정은 (02-2110-1290)
		담당자	사무관	임현주 (02-2110-1622)



# 위치정보사업자등 법규준수 실태점검 주요 위반사례집

2026. 3.

